

최고가 되고 싶은 녀석들의 승부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개봉 : 2012. 2. 2

감독 : 윤종빈

출연 : 최민식, 하정우

상영시간 : 133분

등급 : 청소년 관람불가

홈페이지 : www.crime2012.co.kr




하정우는 완벽한 조직의 보스가 되기 위해 촬영할 때마다 9시간에 걸쳐 전신에 문신을 새겼다. 사진제공_앤드크레딧

비리 세관공무원으로 막후교섭의 달인인 익현(최민식)은 순찰 중 적발한 마약을 일본에 밀수출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최고의 주먹인 조직의 보스 형배(하정우)에게 도움을 청한다. 특유의 친화력과 탁월한 말솜씨로 조직의 신뢰를 얻은 익현은 밀수출에 성공한 후 형배에게 '부산 접수'를 제안하고 둘은 손쉽게 암흑기를 평정한다. 하지만 1990년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시국이 어수선해지자 조직의 의리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배신과 싸움이 난무한다. 최후에 웃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2005년 <용서받지 못한 자>로 부산국제영화제를 비롯한 여러 영화제에서 찬사를 받은 윤종빈 감독이 나름대로 멋지게 살아 보겠다는 '나쁜 놈들'의 우정과 갈등, 의리와 배신을 그린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로 돌아왔다.

윤 감독은 부산의 1980년대 모습을 찾고자 김해, 대구, 울산, 청주, 전주 등 전국을 샅샅이 뒤졌고 과거의 분위기를 살리려고 길거리 간판과 벽은 물론이고 맥주병까지 손질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등 영화의 사실감을 높이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 주연, 조연 가릴 것 없이 '부산 사투리를 현지인처럼 구사할 수 있도록' 연습에 연습을 거듭했고 최민식과 하정우는 아예 촬영 한 달 전부터 부산에서 '어학연수'를 감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올드보이> <악마를 보았다> 등으로 대한민국 최고 영화배우로 자리매김한 최민식은 큼지막한 선글라스에 2대8 가르마를 고수하며 건달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 '반달'로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자신의 날카로운 인상이 이번 배역에 맞지 않는다면 체중을 10kg 이상 늘리기도 했다. <추격자>의 '지영민'으로 연기력을 입증한 하정우는 눈을 살짝 치켜 올리기만 해도 맹수의 기운이 감도는 남자로 변신했으며 조직폭력배를 제대로 연기하기 위해 촬영할 때마다 9시간 동안 전신에 문신을 수놓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했다.

연세 살이나 연기를 소화한 전력을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두 배우의 공연 소식에 네티즌들은 '사이코패스들의 만남'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등의 글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과 사랑 하나도 놓칠 수 없어!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여자

두 아이의 엄마이자 펀드 매니저인 케이트(사라 제시카 파커), 가끔 친구에게 보낼 문자 메시지를 의뢰인에게 보내는 등의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지만 산더미 같은 일정을 거뜰히 소화해 내는 그녀에게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한다. 정신없는 시간의 연속이지만 가정과 일에 애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케이트가 회사의 주요 사업을 맡으며 훈남 의뢰인 잭(피어스 브로스넌)을 만난다. 매력적인 남자도 얻고 자신의 가치도 높일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 그녀는 뜻대로 모든 것을 쟁취할 수 있을까?

길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여성들의 감정을 대변했던 사라 제시카 파커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굿모닝 에브리원> 등을 통해 '여성 심리 묘사의 대가'라는 명성을 얻은 흥행 각본가 엘라인 브로쉬 맥켄나가 <하이힐을 신고 달리는 여자>에서 만났다.

<섹스 앤 더 시티>에서 자신의 삶을 즐기는 당당한 미혼 여성 '캐리'로 활약했던 파커가 이번에는 뉴욕의 직장 여성 '케이트'로 분해 일과 사랑 모두 완벽히 해내는 여성들의 애환과 욕망을 그린다. 세 아이의 엄마이면서 영화배우이자 패션 사업 최고경영자(CEO)인 파커는 실제 삶에서 얻은 다양한 경험과 생각 등을 바탕으로 현실감 넘치는 연기를 선보인다.

집을 나서면서부터 굽 높은 하이힐로 뒹박질하는 것이 일상인 케이트가 말끔한 정장에 케이크 반죽을 묻히고 출근해 당황하거나 알미운 상사의 잔소리를 채치 있게 극복하는 장면 등은 잔잔한 웃음을 자아낸다. 하지만 정신없이 사는 자신의 처지에 눈물 흘리며 "내가 원하는 게 뭘까?"라며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때에는 현대 직장인의 모습과 맞물리며 진한 공감대를 끌어내기도 한다. 영화는 영국의 유명 소설가 토니 파슨스의 극찬을 받으며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른 앨리스 피어슨의 소설 <I Don't Know How She Does It>을 각색한 것이다. 



개봉 : 2012. 2. 2

감독 : 더글러스 맥그래스

출연 : 사라 제시카 파커, 피어스 브로스넌

상영시간 : 95분

등급 : 15세 관람가

홈페이지 : www.heel2012.co.kr



바쁜 일상에 쫓겨 소중한 것들에 소홀해지면서 갈등하는 케이트의 모습은 현대 직장인들의 공감대를 끌어낸다. 사진제공_ (주)누리픽처스

김경의 기자 kki@yna.co.kr